

불법 수집 개인정보 활용때 과징금 폭탄

정보보유기간 '거래종료후 5년간' 제한

정부,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재발방지책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게하고 제재도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를 막기 위해 정보 보관은 최소한으로 제한해 거래종료 후에는 5년간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응 등 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들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5~10년인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래가 종료된 고객 정보는 방화벽을 설치해 별도로 분리하고 영업조직의 접근 마케팅 활용이 제

한된다.

거래 종료 고객이 요청하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고 보관이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해 별도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제3자가 취득한 정보 활용기간은 5년 또는 서비스 종료 시 등 구체적인 명시하고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제3자에 무작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원하는 제3자에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그룹 내에서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외부 영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목적으로만 쓰도록 했다.

현행 과징금 600만원,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도 크게 올라간다.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한 금융사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매출이 1조원이라면 최대 10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제재 규정을 개정해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에 따라 임원 해임 등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 제재도 최대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KCB와 같이 신용정보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가 도입된다.

이번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령상 최고 수준인 영업 정지 3개월의 제재와 더불어 사고 발생 시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직무 정지 등의 징징계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객의 2차 피해를 막고자 정보 유출 카드사가 무료로 결제내역 확인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KCB는 1년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학습지나 홈쇼핑의 경우 확인 전화, 휴대전화 인증 등 추가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카드 재발급 신청 건수는 이날 정오 기준 127만3000건, 탈퇴를 합산한 해지건수는 160만5000건으로 300만건에 육박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조회한 횟수는 900만건이 넘어 1000만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화합 '힐링캠프' 열려

금호화순리조트서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22일 자사의 대표적 노사화합 프로그램인 '힐링캠프'(Healing Camp)를 새롭게 구성한 '힐링캠프 시즌2'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날부터 이틀간 금호화순리조트에서 '힐링캠프 시즌2' 1회를 개최했으며,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을 목표로, 올해 총 20차수, 1200명의 사원을 초청할 계획이다.

'힐링캠프'는 개인적으로는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스스로 행복을 찾고, 조직 내에서는 사원 간 소통을 통해 활기찬 조직을 만들기 위한 프

로그램이다. 지난 한해 동안 19차수, 1184명의 사원들이 힐링캠프에 참여했다. '힐링캠프 시즌2'는 지난해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됐으며 '부부 힐링캠프' 등 새롭게 추가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 신뢰 형성의 기회도 마련하게 된다.

박경석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장(상무)은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모든 갈등의 원인은 사소한 시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힐링캠프를 통해 자신과 주변을 돌아봄으로써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조직문화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고정금리·비거치식 늘어

지난해 은행권의 고정 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택 담보 대출의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고정 금리 대출 비중은 15.9%,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18.7%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고정 금리 비중은 1년 전(14.2%)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7조2000억원이 증가한 5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거치식 비중은 전년보다 4.8%포인트 올랐다. 대출 잔액은 45조3000억원에서 62조8000원으로 늘었다. 고정 금리 비중은 SC은행(39.0%), 씨티은행(31.0%), 기업은행(18.8%) 순이고, 비거치식은 SC은행(28.6%), 씨티은행(28.3%), 국민은행(23.0%) 순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유통화 상품인 적격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는 국고채 금리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적격대출 취급 실적은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고정 금리와 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이고자 앞으로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농협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설명절을 맞아 우리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 특판전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설명절 선물·제수용품 25% 싸게 팔아요

농협광주농산물유통센터, 30일까지 판매
NH카드 결제 세트당 최대 6000원 할인

농협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전기식)가 설을 맞이해 수입 농산물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판로개척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자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일 및 축수산 선물세트와 제수용품 등에 대한 특별

도 준비돼 있다.

한우 선물세트는 냉동·냉동 갈비, 등심, 사골, 우족 등으로 전량 DNA검사 및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등을 철저히 거친 농협안심한우로 시중 대비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올라온 굴비, 갈치, 우뚝 등 수산물 선물세트와 꽃감, 버섯, 더덕, 수삼 등 특산물 선물세트도 준비돼 있다.

특히 특판전 기간 동안 농협대표

브랜드 선물세트 할인행사와 인기 선물세트 40여 품목에 대해 NH카드 결제 시 세트당 최대 6000원까지 현장 할인하는 행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물세트 구매고객에게는 구매수령에 따라 추가 증정, 무료택배서비스 등도 실시한다.

전기식 광주유통센터 사장은 "올해 설에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믿고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을 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판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최재희기자 lion@kwangju.co.kr

제과업 가격 인상분, 원재료보다 최대 64배

소비자단체협 지지

최근 제과·음료업체의 잇따른 주요제품 가격 인상이 원재료 가격 인상보다 최대 64배 높아 이들 기업이 원재료 가격 인상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뺏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3년간 롯데제과·오리온·코카콜라를 주요제품과 원재료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파른 제품 가격 인상과 원재료 가격의 관련성은 거의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 기간 오리온 '초코파이'의 경우 가격이 3200원에서 2800원으로 50%(1600원) 인상됐으나 원재료 가격은 4.9%(25원) 오른 데 그쳤다. 금액 차이는 64배에 달한다.

해태제과의 '에이스'와 롯데제과의 '마가렛트'도 원재료 가격이 10.7%, 9.6% 올랐을 때 제품 가격은 각각 40.0%, 26.9% 인상됐다. 가격차는 각각 33배, 6.3배다. 코카콜라의 경우 원재료 가격은 4.9%(14원) 인하됐지만 가격은 오히려 19.5%(385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윤리경영실천 결의대회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 근)는 지난 21일 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지역 농협 자정 감사역과 광주검사국 감사역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결의 및 사고예방 대책회의'를 가졌다. <광주농협 제공>

2014 입학축하!

KAWAI 피아노 특별판매

엔화의 환율 하락에 연동한 최대 30% 할인된 솔직한 가격.
42년 역사의 (주)코스모스 악기가 공식 수입, 직접 공급하여 중간 마진이 없습니다.

모델명	GM-10	GE-20	GE-30	RX-2	RX-3	RX-5	RX-6	RX-7
기본	¥1,155,000	¥1,240,000	¥1,458,000	¥1,880,000	¥2,047,500	¥2,382,500	¥2,782,500	¥3,307,500
특별	10,500,000	11,000,000	12,000,000	13,000,000	14,900,000	18,400,000	21,600,000	25,900,000

가와이 그랜드 피아노의 특징

RX-3

파격할인!

29,600,000

14,900,000 원

1.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최대의 그랜드 피아노 공장인 일본 하마마츠 류오 공장서 제작.
2. 87년 역사, 3대에 걸친 티헵 없는 철저한 품질관리.
3. 세계최초의 "카본 ABS 내장 건반 액션" 이 적용된 "밀레니엄 III" 건반사용

COSMOSMUSIC.COM

광주지점 062)515-8844

광주지점

062)515-8844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을행영 무례류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